『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빼침선에 대하여*

안대현**

要約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빼침선'은 아직까지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빼침선이 기입되었다고 판독된 모든 용례를 대상으로, 빼침선의 모양과 방향과 시작점의 위치를 기술하고, 상대적으로 용례가 많은 빼침선(22~32), 빼침선(31), 빼침선(42), 빼침선(43)의 분포와 의미의 공통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빼침선(22~32)와 빼침선(31)은 대체로 '爲'의 독법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빼침선(42)는 대체로 '說' 구문에서 인용문이 어디까지인지, '~ㅎ -ㅎ' 구문에서 나열된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빼침선(22~32)의 일부와 빼침선(31)과 빼침선(43)은 같은 위치의 점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빼침선을 포괄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우며, 기능에 따른 명칭을 가진 다른 부호들과는 달리 앞으로도 당분간 형태에 따른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부호, 빼침선, 삐침선

---

* 이 글은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2008년 8월 19~20일, 대전 한밭대)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원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여 논문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준 심사자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연세대학교 강사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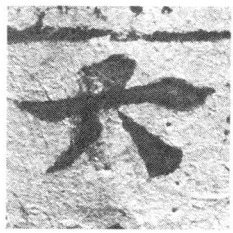
점토석독구결(點吐釋讀口訣)에는 자토(字吐)에 대응되는 점토(點吐) 외에도 자토에 대응되지 않는 다양한 부호(符號)가 사용된다. 초기의 연구인 남풍현(2000),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이승재(2001), 김영욱(2001), 이승재(2002), 이승재・안효경(2002) 등에서는 점토석독구결의 부호를 개괄적으로 다루면서 '역독선(逆讀線)', '경계선(境界線)', '합부(合符)' 등의 기능을 파악하였다. 그 후에 장경준(2003, 2004ㄴ)에서는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계통에 사용된 '지시선(指示線)'의 기능을 밝혔고, 박진호(2004)에서는 주본 『화엄경(華嚴經)』 계통에 사용된 '구분선(區分線)', '중복선(重複線)', '술목선(述目線)', '보충선(補充線)' 등의 기능을 밝혔다. 최근에 점토석독구결의 부호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장경준(2008ㄴ)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은 부호나 최근에 발견된 부호까지 포괄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형	일차 분류 기준	해당 부호
Ⅰ	점토의 위치를 분명하게 표시	경계선, 구분선
Ⅱ	동일한 점토를 두 번 달았음을 표시	중복선
Ⅲ	점토를 달아야 할 한자에 달지 않았음을 표시	지시선, 연결선
Ⅳ	텍스트의 통사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움	합부, 역독선, 합부역독선, 술목선, 보충선
Ⅴ	한문 원문이나 점토의 교정 내지 주석	점도선, 삭제선, 교정부호, 구결자, 한자
불명	아직 그 기능을 파악하지 못함	삐침선, 불심지, 미상

[표1] 점토구결에 사용된 부호의 분류(장경준 2008ㄴ: 310)

장경준(2008ㄴ: 330)에서는 이 가운데 '한자'와 '불심지(不審紙)'는 부호 목록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상'으로 다룬 것 가운데 다음의 예도 부호가 아닌 듯하다.


[그림1] 유가3, 13:13


[그림2] 유가8, 17:17


[그림3] 유가8, 18:05

[그림1~3]에서 한자 가운데에 각필로 기입된 수직선은 부호보다는 점토일 가능성이 높다. 각필선의 형태로 볼 때 이 선들은 양쪽 끝의 두 점을 뚜렷이 찍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기입되었는데,[1] 남풍현(2000) 등에서 언급되었듯이 『유가사지론』의 직선 점토는 이 방식으로 기입되지만 선으로 된 부호는 이 방식으로 기입되지 않는다. 또 의미로 볼 때 위의 예들은 각각 '처음의 것', '여섯 번째의 것', '앞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의존명사가 기대되는 문맥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각필구결 연구모임에서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33(丨)을 자토 'ᄀᆞᆺ'로 해독할 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는데, 글쓴이는 [그림1~3]의 수직선들도 모두 33(丨)으로 판독하고 'ᄀᆞᆺ'와 관련된 점토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다.[2] 이 밖에 '미상'으로 다룬 것들은 예가 너무 적어 부호인지 아닌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

1) 이승재 외(2005)에서는 [그림2~3]의 수직선의 아랫점을 43(·)으로 판독하고 수직선을 미해독의 선으로 처리하여 각각 '第六乙ᄉᆞ', '前乙ᄉᆞ'로 해독하였다. 그러나 [그림1~3]을 보면 수직선에 윗점도 찍혀 있고, 'ᄉᆞ'가 사용될 만한 문맥이 아니라는 점에서, 43(·)으로 판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2) 다만 남성우·정재영(1998: 209-211)에서 밝혔듯이 자토구결의 'ᄀᆞᆺ'는 '-ㄷᄀᆞᆺ+조사'의 구성에만 나타나는데, 주본 『화엄경』의 33(丨)은 항상 'ㄷ'에 대응되는 25(·)이나 'ㅈㄷ'에 대응되는 25(·.)과 함께 나타나지만 『유가사지론』의 33(丨)은 'ㄷ'에 대응되는 42(·)과 함께 나타난 예가 없다. 또 주본 『화엄경』의 33(丨)은 유정물의 예도 있고 무정물의 예도 있지만 『유가사지론』의 33(丨)은 유정물로 해석되는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불심지'나 '미상'을 제외하면, [표1]에서 아직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삐침선'뿐이다. '삐침선'이라는 용어는 각필구결 연구모임에서 이승재 교수가 처음 제안하였고 장경준(2004ㄴ, 2008ㄴ) 등의 연구 논문이나 이승재 외(2006ㄱ) 등의 판독안에서 사용해 왔는데, 이 글에서는 '빼침선'을 사용하고자 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삐치다'는 '글씨를 쓸 때 글자의 획을 비스듬히 내려쓰다'의 의미이고 '빼치다'는 '끝이 차차 가늘어져 뾰족하게 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3]

2. 빼침선의 시작점의 위치

'빼침선'은 유가사지론 계통의 점토석독구결에만 사용된 듯하다.[4] 현재까지 알려진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자료로는 호림박물관(湖林博物館)에 소장된 권3, 성암고서박물관(誠庵古書博物館)에 소장된 권5와 권8, 일본 교토 남선사(南禪寺)에 소장된 권8이 있다. 그리고 개인 소장의 『금광명경(金光明經)』 권3도 유가사지론 계통에 포함된다.

선의 형태를 기술하고 기능을 파악하려면 모든 용례를 검토해야 한다. 장경준(2008ㄴ)에서는 호림본 『유가사지론』 권3과 성암본 『유가사지론』 권5·8에 대한 각필구결 연구모임의 공동 판독안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부호들의 용례 색인을 작성하였는데, 그 가운데 빼침선은 55개의 용례가 제시되었다. 글쓴이는 여기에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과 『금광명경』 권3에 대한 공동 판독안에 나타난 빼침선을 추가하여 모두 78개의 용례를 확보하였다.[5]

---

3) 일본어로는 '先細の線', 영어로는 'tapered line'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경우, 이승재 외(2006ㄱ, ㄴ)에서 미상의 각필선을 '삐침선'으로 표현한 주석이 소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필선의 형태를 기술하기 위한 표현일 뿐이고 『유가사지론』의 빼침선과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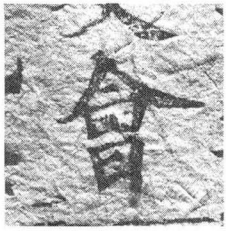
문헌		용례	개수
유가사지론	호림본 권3	色[42,\]<1:16>, 彼[22~32,\]<1:16>, 因[42,\]<1:17>, 因[42,\]<2:1>, 聚[22~32,\]<2:5>, 種[42,\]<2:21>, 種[42,\]<2:22>, 滅[42,\]<4:16>, 等[22~32,\]<5:7>, 轉[42,\]<7:17>, 生[24,/][51,/]<9:17>, 那[43,/]<9:23>, 导[22~32,\]<11:23>, 樂[22~32,\]<12:3>, 命[22,\]<12:4>, 擇[22~32,\]<12:4>	17
	성암본 권5	活[42,\]<4:2>, 以[44,/]<4:12>, 仁[15,/]<6:10>, 穢[15,/]<6:11>, 會[14,/]<6:18>, 已[31,\]<7:19>, 塵[22~32,\]<7:19>, 他[31,\]<7:19>, 自[31,\]<7:23>, 他[31,\]<8:1>, 生[31,\]<8:15>, 生[31,]]<8:17>, 處[31,\]<8:18>, 此[43,/]<8:19>, 說[43~44,/]<16:23>	15
	성암본 권8	第[42,\]<3:19>, 导[22,\]<5:15>, 害[22~32,\]<7:13>, 殺[22~32,\]<10:8>, 儀[42,\]<10:14>, 所[42,\]<10:15>, 命[=42,\]<10:16>, 所[42,\]<10:17>, 離[44,/]<10:22>, 穢[22~32,\]<12:12>, 兒[31,\]<12:15>, 失[22~32,\]<13:5>, 等[31,\]<13:16>, 者[31,\]<15:19>, 害[22,\]<16:13>, 種[42,\]<16:22>, 行[42,\]<17:3>, 熟[42,\]<17:6>, 世[42,\]<17:7>, 父[42,\]<17:9>, 情[42,\]<17:10>, 漢[42,\]<17:12>, 壽[43,/]<18:9>	23
	남선사본 권8	导[32,\]<5:15>, 害[22~32,\]<7:13>, 殺[22~32,\]<10:8>, 儀[42,\]<10:14>, 所[42,\]<10:15>, 命[=42,\]<10:16>, 所[42,\]<10:17>, 離[43,/]<10:22>, 穢[22~32,\]<12:12>, 兒[31,\]<12:15>, 失[22~32,\]<13:5>, 等[31,\]<13:16>, 者[31,\]<15:19>, 害[22~32,\]<16:13>, 行[42,\]<17:3>, 熟[42,\]<17:6>, 世[42,\]<17:7>, 父[42,\]<17:9>, 情[42,\]<17:10>, 漢[42,\]<17:12>, 壽[43~44,/]<18:9>	21
금광명경 권3		德[43,/]<3:13>, 敬[34,/?]<6:21>[6]	2

[표2] 유가사지론 계통 점토석독구결에 사용된 빼침선의 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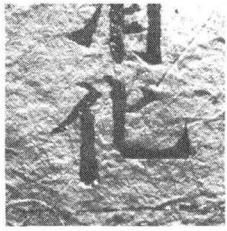
이 78개 용례들을 시작점의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14(1개), 15(2개), 22(3개), 24(1개), 22~32(16개), 31(13개), 32(1개), 34(1개), 42(30개), 43(5개), 43~44(2개), 44(2개), 51(1개)의 1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작점의 위치마다 대표적인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성암본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의 공동 판독안은 이승재 외(2005)에 실려 있다. 그리고 호림본 『유가사지론』 권3, 남선사본 『유가사지론』 권8, 『금광명경』 권3의 공동 판독안은 연구모임에서 파일 형태로 공유되고 있다.

6) 공동 판독안에서 각주로 빼침선일 가능성만 언급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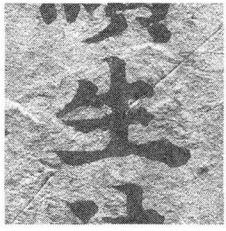
[그림4] 빼침선(14,/)
유가5, 6:18



[그림5] 빼침선(15,/)
유가5, 6:10



[그림6] 빼침선(22,\)
유가3, 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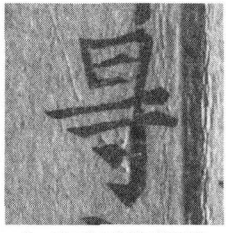
[그림7] 빼침선(24,/) 및
빼침선(51,/) 유가3, 9:17



[그림8] 빼침선(22~32,\)
유가8, 12:12



[그림9] 빼침선(31,\)
유가5, 8:01



[그림10] 빼침선(32,\)
남선유가8, 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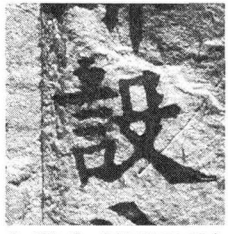
[그림11] 빼침선(34,/?)
금광3, 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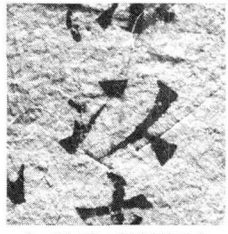
[그림12] 빼침선(42,\)
유가8, 17:12



[그림13] 빼침선(43,/)
유가5, 8:19



[그림14] 빼침선(43~44,/)
유가5, 1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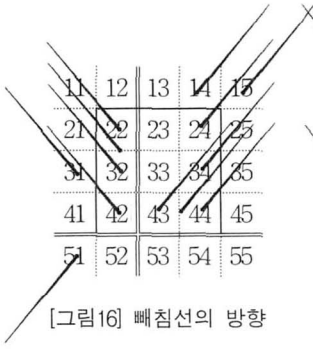
[그림15] 빼침선(44,/)
유가5, 4:12

그런데 『유가사지론』은 한자 자형에 따른 위치 변이가 심하므로, 공동 판독안의 위치 판독은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4]는 '會'의 자형을 고려하면 15 위치일 수도 있다. 또 [표2]에서 성암본과 남선사본의 같은 원문에 달린 빼침선의 위치를 달리 판독한 것들이 있는데, '導'<5:15>는 성암본이 22 위치, 남선사본이 32 위치로, '害'<16:13>은 성암본이 22 위치, 남선사본이 22~32 위치로 판독되었으므로 22, 22~32, 32의 세 위치는 22~32 위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離'<10:22>는 성암본이 44 위치, 남선사본이 43 위치로, '壽'<18:9>는 성암본이 43 위치, 남선사본이 43~44 위치로 판독되었으므로 43, 43~44, 44의 세 위치는 43 위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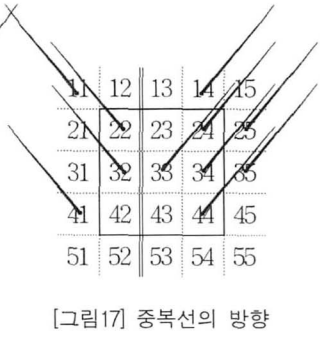
3. 빼침선의 모양과 방향

빼침선의 모양은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이승재(2001)에서 완만한 곡선처럼 표시되었고, 김영욱(2001)에서 직선처럼 표시되었다. 일부 빼침선은 곡선처럼 나타나기도 하나, 대부분의 빼침선은 장경준(2004ㄴ: 29)에서 기술하였듯이 직선에 가깝다. 그리고 '빼침선'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작점에서 멀어질수록 선이 가늘어진다.

한편, 선의 방향은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이승재(2001)에서 좌상과 우상의 두 방향으로만 표시하였으나, 김영욱(2001: 64)에서 좌하 방향을 추가하였다. 공동 판독안에서는 장경준(2005)의 기록 방안에 따라 사선과 역사선을 사용했는데, 우상과 좌하 방향이 구별되지 않는다. 빼침선의 방향은 변별적인 기능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중복선처럼 시작점의 위치가 방향을 결정하는 듯하기 때문이다([그림16~17]). 따라서 이 글에서는 앞으로 빼침선을 기록할 때 '빼침선(42)'처럼 시작점의 위치만 표시하기로 한다.[7]



[그림16] 빼침선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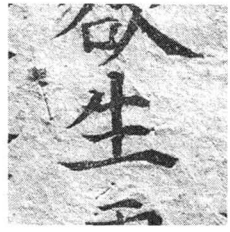


[그림17] 중복선의 방향

이 밖에 이승재 외(2005)에는 수직선이 사용된 유일례인 빼침선(31,|)이 있는데, [그림18~19]에서 보듯이 역사선의 변이로 여겨진다.



[그림18] 빼침선(31,|)
유가5, 08:17



[그림19] 빼침선(31,\)
유가5, 08:15

4. 빼침선의 기능

빼침선을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53-54)에서는 '返讀符'로, 이승재(2001: 233)에서는 '상향 역독선'으로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역독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하는 부호로 파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받

7) 이와 달리 『유가사지론』의 '지시선'은 사선과 역사선의 기능이 변별되므로 선의 방향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아들이기 어렵다. 장경준(2004ㄴ: 29-30)에서 비판된 대로, 역독이 시작되는 곳이 아닌데 빼침선이 달린 예가 있고, 역독이 시작되는 곳에는 점토를 몰아서 달기 때문에 굳이 부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역독 표시로 보기에는 시작점의 위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8]

장경준(2004ㄴ: 30)에서 지적되었듯이, 빼침선의 기능은 시작점의 위치와 관련된 듯하다. 14, 15, 24, 34, 51 등의 위치의 빼침선은 용례가 너무 적으므로, 이 글에서는 용례가 비교적 많은 22~32, 31, 42, 43 위치의 빼침선에서 공통점을 추출하여 기능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4.1. 빼침선(22~32)와 빼침선(31)

빼침선(22~32)와 빼침선(31)은 '爲'의 용법과 관련된 부호인 듯하다. 예문 (1)을 보자. '爲'가 세 번 나타나는데, '爲'가 '하다'의 의미일 때는 '爲'가 걸리는 마지막 한자에 빼침선(22~32)가 달려 있고, '위하다'의 의미일 때는 '爲'가 걸리는 마지막 한자에 빼침선(31)이 달려 있다.

(1) A: 由[역독선]彼諸天[33(·)]爲自己[34(·),45(/),43(·),빼침선(31)]故[21(·)]化[15(·)]爲欲塵[34(·),+53(/),빼침선(22~32)]非爲他[34(·),45(/),43(·),빼침선(31)]故[21(·),15~24(/),33~43(·),34(·),경계선,지시선(\)](唯[24(·),43(·),53(·),경계선]) <유가5, 7:18-20>

B: 彼 諸天ㄱ 自己乙 爲ㄴㄱㅅ乙ㅁ 故ㅣ 化(ㄴㅈ)ㅎ 欲塵乙 {爲}ㄴㄹㅗ 他乙 爲ㄴㄱㅅ乙ㅁ 故ㅣㄴㅎ 非卽乙 由ㅈ(ㄱ)ㅁㅗ(그 諸天은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변화시켜서 欲塵을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님을 말미암은 까닭이다.)[9]

---

8) 이 밖에 장경준(2002)의 발표 석상에서 구두로 잘못 현토된 점토의 제거를 표시하는 부호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승재·안효경(2002: 137)에서 이를 따랐으나, 이 가설은 장경준(2004: 30)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였다.

9) 이 글의 모든 예문에서 A에는 점토석독구결의 판독문을, B에는 이것을 자토

2장에서 공동 판독안을 기준으로 빼침선(22~32) 16개와 빼침선(31) 13개의 색인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든 용례를 대상으로 해도 예문 (1)과 같은 경향성이 발견된다. 빼침선(31)은 13개 가운데 11개가 '위하다'의 의미를 가진 '爲' 구문 끝에 기입되었고, 빼침선(22~32)는 16개 가운데 10개가 '하다'의 의미를 가진 '爲' 구문 끝에 기입되었다.

먼저 빼침선(31)을 검토하기로 한다. 자토석독구결에서는 '爲'가 '위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 예문 (2)의 '-ㅋ {爲}ㅌ/ㅑ(ㅎ)-'과 예문 (3)의 '-乙 爲ㅅ-'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 '-ㅋ {爲}ㅌ/ㅑ(ㅎ)-'은 어떤 '대상'을 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乙 爲ㅅ-'는 대체로 어떤 '목적'을 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예문 (3ㄴ)처럼 어떤 '대상'을 위하는 의미로 사용된 예도 발견된다.[10]

(2) ㄱ. 我ㄱ 當ㅅ 發意ㅅㅓㅎ 多聞藏乙 持ㅅㅓㅅ 阿耨多羅三藐三菩提乙 證ㅅㅓㅎ 諸ㄱ 衆生ㅋ {爲}ㅌ 眞實法乙 說ㅁㅊㅓㅊㅣㅅㅏㅍ入乙('나는 반드시 發意하여서 多聞藏을 가지고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진실법을 說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화소35, 9:01-03>

ㄴ. 人 中ㅓㅊ 師子ㄱ 衆ㅋ {爲}ㅑㅎ 說ㅁㅅㄴㄱ 大衆ㄱ 歡喜ㅅㅓ 金花乙 散ㅅ白ㅁㅌ乙ㅏ(사람 중의 師子는 무리를 위하여 說하시니 대중은 환희하여 금꽃을 흩으며) <구인上, 11:11>

(3) ㄱ. 利養ㅗ 恭敬ㅗ 稱譽ㅗㅅㅍ乙 爲ㅅㅁㅍ丁ㅁㅍ 不ㅎㅅㅋㅅㅍ矢ㅣ (利養이니 恭敬이니 稱譽이니 하는 것을 위한다 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유가20, 4:19>

석독구결의 형식으로 바꾼 해독문과 글쓴이의 현대어 해석문을 제시하였다.

10) 김성주(2005: 34)에서는 자토석독구결의 다음의 '爲'도 '대상'을 위하는 의미로 보았다. 그러나 이 '爲'는 '하다'의 의미이고 '他ㅋ'는 내포문의 주어이다.

a. 二 {於}餘 所ㄷ 事ㅓㅊㅏㄲ 他ㅋ 爲ㅅㅍ入乙 請ㅅㅓ 能ㅏ 成辦ㅅㅎ 非矢ㅣㄱ入ㅱ 故ㅏ(둘째는 나머지 일에 대해서도 남이 해 주기를 청하여 능히 이룩되는 것이 아닌 까닭이며) <유가20, 22:02-03>

ㄴ. 大王ㅜ {是}ㅣ 故ᄆᆞ 佛佛ㅣ {於}世十 出現ᄒᆞᄂᆞᆫㅜ 衆生乙 爲ㅅᄂᆞ ᄃᆞᄫᆞᄉᆞᄆᆞ 故ㅣ 說ᄀᆞᄉᆞ 三界ㅅ 六道ㅅㅣᄉᆞᄒᆞᄂᆞᆫ 名字乙 作ᄂᆞ白ᄀᆞ 乙 是乙 名ᄀᆞ 無量名字ㅅㅣᄒᆞᄀᆞㅅ(대왕이시여, 이런 까닭으로 부처들이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을 위하시는/위하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말하여서 三界니 六道니 하는 名字를 지으시거늘, 이를 일컬어 無量 名字라 하는 것이니,) <구인上, 14:04-06>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에서도 예문 (1)의 '-乙 爲ᄂᆞ-'는 어떤 '대상'을 위하는 의미이지만, 다음의 예문 (4)의 '-乙 爲ᄂᆞ-'는 어떤 '목적'을 위하는 의미이다. 여기에도 빼침선(31)이 기입되어 있다.

(4) A: 由因([+15~25(/)#+25(/),55(·),경계선])味著[34(·),21(·),15~25(/),51(·)]者[23~33(··)]謂爲財穀珍寶等[34(/),45(/),43(·),빼침선(31)]故[21(·),15~25(/),55(·)] <유가8, 13:16-17>

B: 味著乙 因ᄀᆞᄂᆞXᄉᆞㅣ{者}Xᄉᆞᄀᆞ 謂 財穀 珍寶 等ᄂᆞᄀᆞ乙 爲Xᄉᆞ乙ᄆᆞ{故}ㅣᄂᆞXᄉᆞᄀᆞ(味著을 인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즉 財穀 珍寶 등을 위하는 까닭으로 하는 것이며,)

13개의 빼침선(31) 가운데 예문 (5)의 2개는 각필구결 연구모임의 공동 판독안과 동국역경원의 번역문에서 '爲'를 '되다'로 풀이하였다. 그러나 '되다'의 의미를 가진 '-乙 爲ᄂᆞ-'는 자토석독구결에서 발견되지 않는다.[11] 따라서 예문 (5)의 '-乙 爲ᄂᆞ-'도 기입자는 어떤 '목적'을 위하는 의미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12] 이렇게 보면 빼침선(31)은 13개 모두 '爲'가 '위하다'의 의미일 때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 김성주(2005)에서 정리되었듯이, 자토석독구결에는 '-이 되다'의 의미를 가진 '-ㅣㄱ{爲}ᄉᆞ乙 ᄂᆞ-'나 피동의 의미를 가진 '-乙 爲ᄒᆞ-'가 사용될 뿐이다.

12)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은 '欲生'과 '樂生'을 '중생'으로 해석하였으나, 동국역경원 전자불전연구소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강명희 번역 『한글대장경』의 각주처럼 '欲生'과 '樂生'을 '태어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A: 謂若諸沙門[53(·)]或婆羅門[53(·),15(·\)]墮欲求[44(·),11~21(-),42(·)]者[33(·)]一切[42(·)]皆[42(·)]爲三種欲生[34(·),53(/),빼침선(31)]更[22(·)]無[역독선]增過[33(/),55(·)]若諸沙門[53(·)]或婆羅門[53(·),15(·\)]墮有求[44(·),11~21(-),42(·)]者[33(·)]多分求樂[34(·),+31(/),경계선]由貪樂[45(/),24(·),43(·),경계선]故[21(·)]一切[42(·)]皆爲三種樂生[34(·),53(/),빼침선(31)] <유가5, 08:14-17>

B: 謂 若 諸 沙門ㅗ 或 婆羅門ㅗㅅ干 欲求十 墮(ㅅ)ㅂㄴ 者ㄱ 一切ㄴ 皆ㄴ 三種 欲生乙 爲ㅅㄱㅗ 更ㅋ 增過ㅅㄱ 無ㅁ 若 諸 沙門ㅗ 或 婆羅門ㅗㅅ干 有求十 墮(ㅅ)ㅂㄴ 者ㄱ 多分 樂乙 求x亞 樂 貪x入乙 由ㅋ(ㄱ)ㅠ{故}ㅅ 一切ㄴ 皆 三種 樂生乙 爲ㅅㄱㅗ (즉, 혹 여러 沙門이니 혹 婆羅門이니 하는 이가 欲求에 떨어진 자는 모두 다 세 가지 欲生을 위하니(?) 다시 增過함이 없으며, 혹 여러 沙門이니 혹 婆羅門이니 하는 이가 有求에 떨어진 자는 다분히 즐거움을 구하는지라 즐거움을 탐냄을 말미암기 때문에 모두 다 세 가지 樂生을 위하는데(?),)

다음으로 빼침선(22~32)를 검토해 보자. 빼침선(22~32)의 용례는 16개인데, 이 가운데 11개는 '爲'가 '하다' 또는 '되다'의 의미일 때 사용되었다. 또 2장에서 말했듯이 빼침선(22) 3개와 빼침선(32) 1개도 빼침선(22~32)로 판독할 수 있는데, 이들도 '하다, 되다'를 의미하는 '爲' 구문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되면 빼침선(22~32)의 용례는 모두 20개이고, 이 가운데 15개가 '하다, 되다'를 의미하는 '爲' 구문에 사용되었다.

'하다, 되다'를 의미하는 '爲' 구문에 사용된 15개의 빼침선(22~32) 가운데 12개는 예문 (1)이나 예문 (6~7)처럼 '하다'의 의미를 가진 '-乙{爲}ㅅ-'의 목적어 성분 마지막 한자에 기입되었다. 예문 (6)은 역경원 번역에서 '爲'를 '위하다'로 옮겼으나, 대등하게 연결된 "習業想ㅠ(ㅅ)ㄹ非(ㅅ)ㅎ"를 고려하면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3개는 예문 (7)처럼 '장애가 되다'로 해석되는 '障导乙 爲-' 구문에 사용되었다.

자토석독구결이라면 '障导乙 {爲}ㅡㅐ-'가 나타날 문맥이다.[13]

(6) A: 若諸工巧[22~32(·)]但[32~42(·)]爲戲樂[34(·),+53(/),빼침선(22~32)]不爲活命[34(·),15~25(-),35(·),빼침선(22)]非習業想[43(·),15~25(-),35(·)]非爲簡擇[34(·),35(·),33(\),빼침선(22~32)]此工巧處業[33(·)]是[33(·)?]染汙[22~32(·),55(·)]餘[33(·)]是[33(·)?]无記[22~32(·),51(·)] <유가3, 12:03-05>

B: 若 諸 工巧ㅐ 但ㅅ 戲樂乙 爲ㅅ尸ㅗ 活命乙 爲(ㅅ)尸 不(ㅅ)ㅎ 習業想ㅡ(ㅅ)尸 非(ㅅ)ㅎ 簡擇乙 爲(ㅅ尸) 非(ㅅ)ㅎㅅㄱ 此 工巧處業ㄱ 是ㄱ 染汙ㅐㅅ 餘ㄱ 是ㄱ 无記ㅐㅣ(만약 諸 工巧가 오직 戲樂을 하는 것이지 活命을 하지 않고 習業想으로 하지 않고 簡擇을 하지 않고 한 이 工巧處業은 染汚이며 나머지는 無記이다.)

(7) A: 不善法[51(·)]者[23~33(·)]謂與善法[42(·)]相違[35(·)]及能[55(·)]爲障导[34(·),35(·),+51(.·),경계선,빼침선(22~32)] <유가3, 11:22-12:01>

B: 不善法(ㅐ)ㅣ{者}(ㅅㄱ)ㅅㄱ 謂 善法 與ㄴ 相違(ㅅ)ㅎ 及 能ㅅ 障导乙 爲ㅎxㅣ(不善法이라 하는 것은 즉 善法과 다르고 능히 장애가 되고 한다.)

한편, 20개의 빼침선(22~32) 가운데 5개는 '爲' 구문과 관련이 없다. 4개는 아래의 예문 (8)과 (9)처럼 '成' 구문에 나타난다. 그런데 '成'이 '이루다'라는 의미를 가진 타동사로 사용될 때 자토석독구결에서는 '-乙 成ㅐ-'만 나타나고 '-乙 成ㅅ-'는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成' 구문에 사용된 4개의 빼침선(22~32)는 부호가 아니라 자토 'ㅐ'에 대응되는 22~32(·)와 관련된 점토일 가능성이 있다.[14]

---

13) 자토석독구결에서는 '障导ㅐ尸{爲}ㅅㄹㅅㄴ-'로 현토되기도 한다.

14) 한 익명의 심사자는 (8)과 (9)에서 '殺'과 '非'에도 'ㅐ'가 현토될 수 있음을 들어 빼침선(22~32)가 22~32(·)의 중복선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等' <유가3, 5:7>에 기입된 빼침선(22~32)는 중복선일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다.

(8) A: 血塗其手[51(·)]者[23~33(··)]謂[33(·)]爲成殺[+45(\),31(·),22(·),빼침선(22~32)]身[33(·)]相[22~32(·)]變[43(ㅣ)]故[55(·)] <유가8, 10:08-09>

B: 血塗其手(ㅢ)ㅣ{者}x入ㄱ 謂ㄱ 殺ノ尸入乙 成(ㅢ){爲}人(ノ)ミ 身ㄱ 相ㅢ 變x灬{故}ㅀ(血塗其手라 하는 것은, 즉 殺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여 몸은 相이 변하기 때문이며,)

(9) A: 又非[역독선]極微[22~32(·)]集[=22(·)]成色聚[34(·)#34~35(·),15~24(/),25(·)?,빼침선(22~32)] <유가3, 02:04-05>

B: 又 極微ㅢ 集(ノ)ミ 色聚乙 成(ㅢ)ㅅ 非ㅊ(또한 極微가 모여 色聚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머지 1개는 공동 판독안에서 '彼'<유가3, 1:16>에 기입되었다고 한 것인데, 다른 19개의 예들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고 각필선이 분명하지 않아서 빼침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1개의 예를 제외한 19개의 빼침선(22~32)와 13개의 빼침선(31)의 분포는 [표3]과 같다.

빼침선(22~32)	19개	빼침선(31)	13개
① -乙 爲ノ- (-을 하다)	12개	① -乙 爲ノ- (-을 위하다)	13개
② 障导乙 爲- (장애가 되다)	3개		
③ -乙 成- (-을 이루다)	4개		

[표3] 빼침선(22~32)와 빼침선(31)의 분포

이와 같은 경향을 고려하면, 빼침선(31)과 빼침선(22~32)는 '爲'의 용법과 관련된 부호로 추정해 볼 수 있다. '爲'의 용법과 관련된다고 할 때 가능한 추정은 다음의 셋 정도가 아닌가 한다.

(가) 성조(聲調)를 표시하는 기능 - 음운적 정보
(나) 파음(破音)을 표시하는 기능 - 의미적 정보
(다) 독법(讀法)을 표시하는 기능 - 형태적 정보

(가)는 빼침선(22~32)는 '爲'가 평성임을, 빼침선(31)은 '爲'가 거성임을 표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나)는 빼침선(22~32)는 '爲'가 본뜻인 '하다'로 사용됨을, 빼침선(31)은 '爲'가 파생된 뜻인 '위하다'로 사용됨을 표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다)는 빼침선(22~32)는 '爲'가 부독자(不讀字)임을, 빼침선(31)은 '爲'가 독자(讀字)임을 표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빼침선이 '爲'에 기입되었다면 성조나 파음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빼침선이 '爲' 구문의 마지막 한자에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법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다.[15]

빼침선(31)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앞의 예문 (3ㄴ)에서 자토석독구결의 '衆生乙 爲ㅅᄂᆞᆫ尸ㅅᄆᆞᆷ'를 제시하였는데, 이때 'ㅅ'가 'ᄂᆞᆫㅅ'의 생략이 아니라 '爲'의 석독에 해당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ㅅ'나 예문 (10)과 같은 15·16세기의 '과ᄒᆞ-'가 '위하다'의 의미와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빼침선(31)은 'ㅅ'로 해독되는 점토 31(·)과 관련된 것일지도 모른다.

(10) ㄱ. ·나ᄂᆞᆫ :보비ᄅᆞᆯ 아니 과·ᄒᆞ·야 功德·으·로 莊嚴·ᄒᆞ·노이다 = 吾不貪寶 當以功德莊嚴 <석보상절 3:11b>

ㄴ. ·길 ·녏 ·사ᄅᆞ미 보고 모·다 과·ᄒᆞ야 彈指ᄒᆞ·며 ·우더·니 = 路人見者 還聚而嗟之 或爲之彈指 或爲之泣下 <삼강행실도 열녀도: 16a>[16]

ㄷ. 므·슴 시·를 과·ᄒᆞ·ᄂᆞᆫ·다 = 要甚麽絲 <번역노걸대 하:26a>

---

15) 글쓴이가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때, 권인한 교수는 일본의 훈점자료에서 성점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한국의 구결 자료에서는 그 동안 성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여, 빼침선이 성점이나 파음의 기능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바 있다. 글쓴이도 그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승재(2005: 30)에서 지적된 대로 일본은 경문을 독송할 때 한음(漢音)을 중시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없음을 고려하면, 성점으로 볼 수 있는 예가 더 발견되기 전까지는 성점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본다.

16) 이 예는 '과ᄒᆞ-'가 '爲'가 아닌 '嗟'에 대응될 가능성도 있다.

4.2. 빼침선(42)

빼침선(42)도 분포에서 경향성이 발견된다. 공동 판독안의 30개 용례 가운데 27개는 예문 (11)처럼 '說'의 대상인 인용문의 마지막 한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예문 (12)처럼 '-ᄒᆞ'로 나열된 단위의 마지막 한자에 달린 용례가 2개이다. 나머지 1개는 공동 판독안에서 성암본 『유가사지론』 권8의 '種'<16:22>에 달렸다고 본 예인데, 나머지 29개와 공통점이 없는 문맥에 사용되었고 남선사본의 같은 한자에 빼침선이 없음을 고려하면 빼침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1개의 예를 제외한 빼침선(42)의 29개 용례는 분포에 따라 [표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1) A: 說[역독선]如是[33(·)]言[34(·),22(·)]無有化生有情[+52(··),54~55(:),빼침선(42,\)] <유가8, 17:10>
B: 是 如(ㅅ)ㄱ 言ㄹ 說ᄒᆞ 化生 有情 無有x-xᄀᆞ(이와 같은 말을 일러 "化生 有情이 없는 것이다" 하며)

(12) A: 由此因緣[34(·),22(·)]施設諸[24(·)]聚[34(·),+12(\)]有增[35(·)]有減[35(·),+51(·.),빼침선(42,\)] <유가03, 04:15-16>
B: 此 因緣ㄹ 由ᄒᆞ 諸 聚ㄹ 施設xㅁ 增 有ᄒᆞ 減 有ᄒᆞㄴᄒᆞㅣ(이 因緣을 말미암아 모든 聚를 施設하되 增 있고 減 있고 하다.)

빼침선(42)	29개
① 說ᄒᆞ/說xᄆᆞ " … " ㅅᆞ- (-라고 하다)	27개
② -ᄒᆞ -ᄒᆞ ㅅᆞ- (-고 -고 하다)	2개

[표4] 빼침선(42)의 분포

이러한 분포를 고려하면, 빼침선(42)는 말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 또는 나열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내용이나 나열하는 내용 뒤에는

'ㄴ-'에 해당하는 점토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굳이 부호를 사용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17]

4.3. 빼침선(43)

공동 판독안에 나타난 빼침선(43)의 용례는 모두 5개로, 4.1과 4.2에서 다룬 빼침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여기에 빼침선(43~44)나 빼침선(44)가 빼침선(43)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빼침선(43)은 4.1과 4.2에서 다룬 빼침선들과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빼침선(22~32), 빼침선(31), 빼침선(42)는 모두 구절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초기 연구에서 역독이 시작되는 곳을 표시한다고 본 듯하다. 이와 달리 빼침선(43)은 예문 (13)과 (14)에서 보듯이 구절 중간에 달려있다.

(13) ㄱ. A: 生刹那[빼침선(43)]後刹那不住[43(ㅣ)]故[21(·)]名[54(·)]無常有爲相[53(·),+51(·.)] <유가3, 09:23-10:01>

B: 生刹那 後 刹那 不住x ㎳ 故ㄴ 名ㅜ 無常有爲相ㅗx ㅣ (生刹那로부터 後에 刹那는 不住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無常有爲相이라고 한다.)

ㄴ. A: 由諸世間[44(·)]爲不苦不樂寂靜生處[34(·),빼침선(31)]起[역독선]追求[34(·),15~24(/),42(·)]者[33(·)]極爲尠[15(·\),33~43(·),34(·),22(·)]少[11~21(-),24(·),지시선]故[41(·)]此[빼침선(43)]以上[32~42(·),경계선]不[역독선]立[15(·)]爲

17) 한 익명의 심사자는 인용문의 종결 부분이 불완전한 예문이 많음을 근거로 빼침선(42)가 인용문의 종결부분에 대응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가사지론』 권8에는 예문 (11)을 비롯하여 인용문의 종결어미와 모문의 종결어미가 모두 점토로 표시된 문장이 많다. 막연한 추측이지만, 42 위치의 점토를 고려하면 화법 구문에 많이 나타나는 선어말어미 'ㅅㄷ'과 관련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각주로만 언급해 둔다.

[24(\),55(·)]生[24(·),지시선] <유가5, 08:17-19>

B: 諸 世間十 不苦不樂寂靜生處乙 爲 追求乙 起ㅅ令ㄷ 者ㄱ 極 尠少(ㅅ)ㅌ {爲}ㅑX印乙 由ㅋ 故ㅈ 此 以上ㅅ 立(ㅅㅋ)ㅈ 生 {爲}ㅑㅅ令 不(矣)分(모든 세간에서 不苦不樂寂靜生處을 위하여 追求를 일으키는 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여기는 것임을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로부터 이상은 세워서 生으로 삼는 것이 아니며)

(14) A: 尋伺決擇[51(·)]者[23~33(·)]若尋伺[23(·),23~33(·)]卽分別[51(·),24(\),22(·)]耶設[빼침선(43~44)]分別[23(·),23~33(·)]卽尋伺[51(·),24(\),22(·)]耶 <유가5, 16:22-23>

B: 尋伺決擇(ㅐ)ㅣ{者}(ㅅㄱ)入ㄱ 若 尋伺ㄹ入ㄱ 卽 分別(ㅐ)ㅣㅅ令ㅋ{耶} 設 分別ㄹ入ㄱ 卽 尋伺(ㅐ)ㅣㅅ令ㅋ{耶}(尋伺決擇이라 하는 것은, 만약 尋伺의 경우에는 分別이라 할 것인가? 설령 分別의 경우에는 尋伺라 할 것인가?)

빼침선(43)은 'ㅱ'로 해독되는 점토 43(·)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13)의 빼침선(43)은 '-로부터'로 해석될 수 있는 문맥에 사용되었고, (14)의 빼침선(43~44)는 '설령, 비록'으로 해석되는 '設'에 사용되었는데, 안대현(2008: 211-214)에서는 이와 같은 문맥에 사용된 주본『화엄경』점토석독구결의 43(/)을 'ㅱㅅ'으로 해독하였다. 따라서 빼침선(43)도 'ㅱㅅ'과 대응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 역시 같은 위치의 점토와 빼침선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예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빼침선을 시작점의 위치와 선의 방향에 따라 기술하고, 시작점의 위치에 따른 빼침선의 기능을 추정해 보았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빼침선(22~32)와 빼침선(31)은 '爲' 구문에서 '爲'의 독법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빼침선(42)는 '說' 구문에서 인용문이 끝나는 곳과 '-ㅎ -ㄹ'에서 나열하는 내용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成' 구문이나 '障导乙 爲' 구문의 빼침선(22~32), 그리고 빼침선(31)과 빼침선(43)은 시작점의 위치의 점토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들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빼침선의 시작점의 위치가 같은 위치의 점토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점토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빼침선이 왜 그 위치에서 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연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빼침선(43)의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 '위하다'의 의미를 가진 '爲ㅅ-'가 '과ᄒᆞ-'로 석독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빼침선과 점토의 관련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로서는 '爲' 구문에 사용된 빼침선(22~32)이 22~32(·)과 관련될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렵고, '說' 구문에 사용된 빼침선(42)이 42(·)과 관련될 가능성을 근거로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 빼침선이 점토와 관련된다면 빼침선의 성격이 부호인지 점토인지 모호해지는 측면도 있다. 이는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 체계에서 점토와 부호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어쨌든 빼침선의 기능은 아직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으므로, 기능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부호들과 달리 당분간 형태를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좀 더 충분한 자료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김성주(2005), 「'爲'에 懸吐되는 口訣字와 機能」,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29-54.
김영욱(2001), 「『유가사지론』 점토(點吐)의 해독 방법 연구」, 『구결연구』 7, 구결학회, 57-77.
남성우 · 정재영(1998),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表記法과 한글 轉寫」, 『구결연구』 3, 구결학회, 195-251.
남풍현(2000),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서지학보』 24, 한국서지학회, 5-45.
남풍현(2007), 「字吐釋讀口訣에 나타난 不讀字에 대한 考察」,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207-250.
박진호(2004), 「周本 『華嚴經』 卷第六의 點吐 重複 表記와 符號」,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29-148.
안대현(2008), 「주본 『화엄경』 점토석독구결의 해독(2)」, 『국어학』 51, 국어학회, 195-227.
윤행순(2004), 「韓國의 角筆符號口訣과 日本의 訓點에 나타나는 華嚴經의 不讀字 用法」,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39-63.
윤행순(2007), 「韓日 漢文釋讀法에서의 不讀字 範圍에 대한 考察」,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07-137.
이승재(2000), 「새로 발견된 각필(角筆) 부호구결과 그 의의」, 『새국어생활』 10-3, 국립국어연구원, 135-152.
이승재(2001), 「瑜伽師地論 角筆 符號口訣의 解讀을 위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229-250.
이승재 · 안효경(2002), 「角筆 符號口訣 資料에 대한 조사 연구 — 誠庵本 『瑜伽師地論』 卷第5와 卷第8을 중심으로 —」, 『구결연구』 9, 구결학회, 115-145.
이승재(2002), 「옛 문헌의 각종 부호를 찾아서」, 『새국어생활』 12-4, 국립국어연구원, 21-43.
이승재(2005), 「고려시대의 불경 교육과 구결」, 『한국사 시민강좌』 37, 일조각, 25-48.
이승재 외(2005),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1 — 初雕大藏經의 『瑜伽師地論』

卷第五・卷第八 —』, 태학사.
이승재 외(2006ㄱ),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2 — 周本『華嚴經』卷第三十六 —』, 태학사.
이승재 외(2006ㄴ), 『角筆口訣의 解讀과 飜譯 3 — 周本『華嚴經』卷第六・卷第五十七 —』, 태학사.
이 용(2005), 「각필구결 자료의 한자와 구결점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구결연구』 15, 구결학회, 55-76.
장경준(2002), 「『瑜伽師地論』 角筆口訣에 대한 管見」, 구결학회 월례강독회(2002.2.23) 발표 원고.
장경준(2003),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대하여」,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189-209.
장경준(2004ㄱ), 「구결점의 현토 위치의 세분과 위치 변이 현상에 대하여」, 『구결연구』 13, 구결학회, 149-174.
장경준(2004ㄴ),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해독 방법 연구 — 권5, 8의 단점(單點)을 중심으로 —」, 연세대 박사논문.
장경준(2005), 「점토구결 자료의 판독 및 해독 결과 기록 방안」, 李丞宰 外(2005)에 수록, 127-141.
장경준(2006), 「점토 체계의 특징이 부호의 사용에 미치는 영향」,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209-239.
장경준(2008ㄱ), 「『유가사지론』 점토석독구결의 '지시선'에 관한 補論」, 『국어학』 51, 국어학회, 175-194.
장경준(2008ㄴ), 「高麗初期 點吐口訣의 諸符號」, 『한국어학』 40, 한국어학회, 307-339.
小林芳規・西村浩子(2001), 「韓國遺存の角筆文獻調査報告」, 『訓點語と訓點資料』 107, 東京:訓點語學會, 36-68.
小助川貞次(2008), 「日本語 訓點資料에서 破音의 의미」, 『구결연구』 20, 구결학회, 71-92.

〔405-731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동아아파트 3동 401호〕
E-mail: sumsori@hanmail.net
접수일자: 2008. 12. 24.
게재결정: 2009. 01. 08.

A study on tapered lines used in code *kugyol* of *Yuqieshidilun*(瑜伽師地論)

Ahn, Dae-hyeon

Functions of tapered lines used in code *kugyol* of *Yuqieshidilun* have not been founded out yet. In this paper, I checked all tapered lines and described their shapes, directions, and positions of starting point, and searched for the respective common properties of tapered line(22~32), tapered line(31), tapered line(42). After examination, I extracted the following tendencies; Firstly, it is assumed that tapered line(22~32) and tapered line(31) generally represent two different ways of reading of '爲'. Secondly, it is assumed that tapered line(42) generally represent where quotations end in construction of '說', and where enumerated lists end in construction of '-ㅋ -ㅋ'. Thirdly, it is possible that some tapered line(22~32), tapered line(31), tapered line(43) have relation to kugyol points in the same posi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comprehensive function of all tapered lines now, and it would seems that we should use the term based on the shape of line will be used for the present.

Key words : *Yuqieshidilun*, code *kugyol*, mark, tapered line, ppichim line